

메가쇼크 10가지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검입)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한국, 한국기업, 한국인이 좋은 나라, 좋은 기업, 좋은 국민이 되려면 10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10가지 메가 쇼크(Mega Shock)를 이겨내야 한다. 트렌드라고 한가하게 부르기에 너무나 빠르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아서 메가 쇼크라고 불러야 옳다.

첫째, 세계화 쇼크다. 탈냉전, 국경의 붕괴, 무한경쟁, 글로벌 스탠다드, 카지노자본주의, 달러 대 위엔화, 기업의 찰스다워니즘, 투명경영 등등. 세계화하면 생각나는 숨 가쁜 키워드들이다. 어느 것 하나 간단하고 만만치 않다. 이 모든 단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쳤다. 세계자본을 꺾으며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 영국계펀드 소버린은 SK의 경영권을 압박하는가 했더니 거액의 차익을 먹고 사라졌다. 골드만삭스도 외환위기 후 화의 중이던 진로를 주무르며 거액을 챙겼다. 이제 국가라는 보호막 속의 지역주의 로컬리즘(Localism)에서 글로벌리즘(Globalism)에 입각한 세계화·지구촌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역풍도 만만찮아서 세계화는 지역화와 균형점을 향해가고 있다. 이른바 21세기 균형주의 글로벌리즘(Glocalism)의 시대가 됐다.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쇼크를 극복, 선진화 이뤄야

중국은 6000만 명이 넘는 화교자본의 힘을 배경으로 중국 창조를 꺾고 인도 역시 2000만 명의 인교(印僑)를 통해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역시 600만 한교(韓僑)의 네트워크와 적극결합하는 게 필요하다.

둘째, 민주화 쇼크다. 산업화를 이룩한 동시에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다. 경제민주화도 필수 관문이다. 그런 것들을 통과 후 선(先)진화를 이루고 선(善)진화를 향해가야 한다. 그런

데 기업내부의 적이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형제의 난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비뚤어진 소유와 경영체제인 지배구조와 상습적으로 파업을 일삼고 부패를 자행하는 상당부분의 노조지도부가 그것이다. 이제 보스십(Boss-Ship)보다 파트너십이 절실하다.

셋째, IT·하이테크쇼크다. 이른바 '스리애니(three any)'를 실현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네트워킹' 비전으로 요란하다.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떤 단말기(Any device)로도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해 비즈니스, 게임, 미디어 감상이 가능해지고 있다. 하이테크 6T는 정보테크(IT), 나노테크(NT), 바이오테크(BT), 환경테크(ET), 우주항공테크(ST), 문화테크(CT)의 통칭이다. 21세기 하이리스크·하이리턴(Hi-Risk, Hi-Return)의 요소들이다.

환경쇼크 등을 극복하여 지속가능 경영되도록

넷째, 저출산·고령화 쇼크를 이겨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출산장려금 같은 돈 시스템도 중요하거니와 탁아시스템과 탁노(託老)시스템 같은 사회대책이 긴요하다.

다섯째, 여풍(女風)쇼크를 잘 이해해야 한다. 여성존중·여성경영·여성과 함께는 목전의 과제가 됐다. 여자는 시간과 돈과 정보를 장악했다.

여섯째, 환경쇼크다. 이제 환경은 외면할 수 없는 아젠다다. 환경·발전을 모두 얻는 녹색성장만이 지속성장가능경영을 열 수 있다.

일곱째, 친디아(Chindia)쇼크를 이겨내야 한다. 친디아는 차이나(China)와 인디아(India)의 결합어다. 곧 중국에서 만든 소나타를 구입해야할지 모른다. 한국이 IT강국을 자부하지만 인도의 소프트웨어를 극복해야 한다.

여덟째, 원자재 쇼크다. 배럴당 원유가는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얼마 전 한국석유공사는 베트남에서 경제성이 높은 유전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끊임없는 유전확보와 대체에너지 연구가 시급하다. 철강 등 광물자원과 농산물 등의 가격도 참기 힘든 고통을 주고 있다.

아홉째, 북핵·테러쇼크다. 이라크에 진출했던 가나무역의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은 알 카에다 연루 의혹자가 경유한 국가다. 또한 북핵을 요리하고 경영하면서 개성공단을 두드려야 한다.

열 번째, 부동산 쇼크다. 한국인은 모두 부동산에 관한한 달통한(?) 도사들이며 동시에 피해자들이다. 한국에서는 비싼 값에 공장부지를 구입해야한다. 반면에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도 팔리지 않는 공장부지 때문에 골치를 앓아야 한다.